



HANNAH CHOI MINISTRIES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후반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두가지의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작용이고 두번째는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각 사람이 자라고 교육받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부터 뿌리가 형성되어 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사람이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의 영향이 일생을 지배한다고 알려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생각 속에 들어간 가르침이 행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생각을 형성하게 만든 교육과 가치관과 생활과 상황의 정서들이 청년기에 각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아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 행위의 주체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인 ‘나’ 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은지 오래 됐는데 참 안 변해’ 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님 믿은지 오래 되신 권사님 시어머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낙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 되지 않은 자아와 그 자아를 지배하는 생각들이 보이는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생각에 우리의 자아와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에 쓰여진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이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의 각도에 맞추어 각도가 맞으면 행하고 각도가 맞지 않으면 맞춰질 때 까지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고 육에 속한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도록 기도로 애쓰고 힘쓰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그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으로 살고 있다면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 시킨 영향력으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여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의 영향력과 선한 열매 맺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